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송귀숙 · 류다영

혜전대학 치위생과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wui-Sook Song · Da-Young Ryu

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dat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planning of oral health education, by surveying th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27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in Hongseong-gun.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4.0 program.

Results : Knowledge of oral health was very high. Correct attitudes and positive behavior were indica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school year($p<0.05$). Positive correlation was significantly observed among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p<0.01$). Especially, attitudes and behavior were highly correlated($r=0.583$).

Conclusions : Children'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oral health were mutually influenced. Thus,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causing changes in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students, as opposed to delivering simple knowledge. Through continuous oral health education, correct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can be developed. Thus oral health education was expected to promote healthy habit for oral health.

Key words : oral health attitud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knowledge

색인 :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행동

1. 서론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강건강을 확보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근래에 이르러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전신신체 발달상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구강상태는 오

히려 더욱 나빠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¹⁾.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로 요양기관을 많이 이용한 질환은 호흡기 질환인 급성기관지염과 급성 편도염 다음으로 치과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병 순으로 나타났다²⁾. 특히 치은염은 2001년 8위, 2005년 5위에서 2009년 3위로 이용 빈도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치아우식병 또한

교신저자 : 송귀숙 우) 350-702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 16번지

전화 : (041) 630-5328 E-mail : sk7664@naver.com

※ 본 논문은 2009년 혜전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일-2010년 12월 24일 수정일-201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2011년 2월 19일

2001년 6위, 2005년 4위, 2009년 5위로 다빈도 질환 순위 순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은 외래 다빈도 질환 순위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치아 조기발거의 주요 원인이므로 올바른 구강보건관리를 통해 충분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생은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 장차 자신의 구강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구강을 관리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치아우식병이 발생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치은염이 발생된다. 특히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95년 3.1개³⁾, 2000년 3.3개⁴⁾, 2003년 3.25개⁵⁾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2.2개⁶⁾로 감소하였으나 OECD 세계평균의 1.6개에 비하여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학교인구인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학교구강보건의 건실하게 발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이^{7,8)}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사업과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⁹⁾,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등¹⁰⁾은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김 등¹¹⁻¹⁴⁾은 구강보건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외 Oliverira 등¹⁵⁾과 Ostverg 등¹⁶⁾은 구강보건지식, 행동과 치아우식병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김¹⁷⁾은 구강보건지식과 태도와의 연구를 보고하였을 뿐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전 영역에 대한 관련성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보

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하여 향후 개인의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임의로 H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고학년에 해당되는 5학년, 6학년 전체 23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2009년 12월 3일에 각 학년 교실로 방문하여 본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직접 기입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총 235부 중 자료처리가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한 22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도구는 선행연구¹⁰⁻¹⁴⁾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 및 보완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10문항,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8문항,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9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을 부여하였고, 구강보건태도와 구강보건행동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를 1점으로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해 각각 0.507, 0.680, 0.742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14.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55.5%, 여학생이 44.5%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5학년이 43.2%, 6학년이 56.8%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취업형태는 모두 취업이 69.2%, 한 분만 취업 27.3%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각각 30.4%, 27.8%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10문항 10점 만점에서 평균 7.86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였으나 ‘치주병의 원인은 프라그이다’와 ‘과일, 우유,

야채는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의 문항에서는 각각 40.5%, 56.4%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3.3.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50으로 높게 나타났다. ‘칫솔질은 식후에 해야 효과적이다’와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에서 각각 4.02,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가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가지 않는다’에서 2.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3.4.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은 5점 만점에서 3.51로 높게 나타났다.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26	55.5
	Female	101	44.5
School year	5th grade	98	43.2
	6th grade	129	56.8
Parents' employment form	Both are employed	157	69.2
	Only one parent is employed	62	27.3
	Both are not employed	7	3.1
	Non-response	1	0.4
Fa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7	3.1
	Middle school graduate	6	2.6
	High school graduate	46	20.3
	Over university graduate	69	30.4
	Don't know well	98	43.2
	Non-response	1	0.4
Mo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5	2.2
	Middle school graduate	8	3.5
	High school graduate	53	23.3
	Over university graduate	63	27.8
	Don't know well	97	42.7
	Non-response	1	0.4
Total		227	100.0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Unit : N(%)

Items	Correct answer	Incorrect answer
A decayed tooth is caused by failing to brush teeth well.	193(85.0)	34(15.0)
A cause for gum disease is dental plaque.	92(40.5)	135(59.5)
When brushing teeth, the upper teeth need to be brushed from up to down, and the lower teeth need to be brushed from down to up.	203(89.4)	24(10.6)
When brushing teeth, even tongue needs to be cleaned.	219(96.5)	8(3.5)
Toothbrushing needs to be certainly done before going to sleep.	210(92.5)	17(7.5)
Fluorine toothpaste is helpful for preventing a decayed tooth.	165(72.7)	62(27.3)
A habit of supporting a jaw allows the shape of tooth or jaw not to be right.	159(70.0)	68(30.0)
Fruit, milk, and vegetable are food of making teeth clean.	128(56.4)	99(43.6)
Chocolate, biscuit, and candy are food of causing a decayed tooth well.	216(95.2)	11(4.8)
Tobacco is harmful for the mouth.	199(87.7)	28(12.3)
M±D	7.86±1.59	

Table 3. Oral health attitude

Items	M±D
Not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sleep leads to making it feel unpleasant in the morning.	3.54±1.33
Toothbrushing is effective only when doing after a meal.	4.02±1.15
Only using fluorine toothpaste leads to being effective for preventing a decayed tooth.	3.61±1.43
A tooth is important more than any other health problems.	3.40±1.29
Liking to learn how to well manage teeth.	3.98±1.18
Thinking which influence the food I eat has upon health of teeth.	3.24±1.31
I have responsibility for my own oral health.	3.51±1.28
If a tooth is not painful, I don't go to dental clinic.	2.63±1.45
Total	3.50±0.73

‘칫솔질은 식후에 한다’에서 각각 4.11,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콜릿, 과자, 사탕은 가끔씩 먹지 않는다’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에서 각각 2.98, 2.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부모가 둘 다 취업한 경우(0.79)와 한 분만 취업한 경우(0.79)가 둘 다 취업하지 경우(0.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

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대졸 이상(0.83, 0.82)이 고졸이하(0.78, 0.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3.53)이 남학생(3.47)에 비해 높았으며, 학년은 6학년(3.52), 부모의 취업형태는 둘 다 취업(3.5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3.62, 3.64)보다 대졸 이상(3.70, 3.67)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은 성별에서는 남학생(3.56)이 학년에서는 6학년(3.63)이 높았으며, 부모의 취업형태는 부모 중 한 분만 취업(3.61)한 경우에서 높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대졸 이상(3.67), 어

머니는 고졸 이하(3.6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행동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Table 5).

3.6.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지식과 태도,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태도와 행동이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r=0.583$)를 보였다($p < 0.01$) (Table 6).

Table 4. Oral health behavior

Items	M±D
Teeth are brushed with a rolling method.	3.28±1.39
After toothbrushing, the tooth condition is confirmed through a mirror.	3.79±1.27
Toothbrushing is done after a meal.	3.92±1.15
In case of toothbrushing, even tongue is cleaned.	4.11±1.21
Chocolate, biscuit, and candy are not eaten, if possible.	2.98±1.27
Fruits or vegetables are eaten much.	3.69±1.14
Toothbrush is changed every 3 month.	3.10±1.44
Toothbrush is kept in order to face upwards without being touched mutually the toothbrush heads.	3.85±1.45
Oral check-up is received by visiting dental clinic regularly.	2.52±1.37
Total	3.51±0.78

Table 5.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Unit : M±D

Classification	Knowledge	P	Attitude	P	Behavior	P
Gender						
Male	0.79±0.16	0.753	3.47±0.75	0.464	3.56±0.83	0.273
Female	0.78±0.16		3.53±0.71		3.44±0.71	
School year						
5th grade	0.79±0.17	0.946	3.47±0.69	0.635	3.35±0.87	0.011*
6th grade	0.79±0.15		3.52±0.77		3.63±0.69	
Parents' employment form						
Both are employed	0.79±0.15	0.759	3.52±0.72	0.590	3.49±0.73	0.179
Only one parent is employed	0.79±0.18		3.46±0.74		3.61±0.91	
Both are not employed	0.74±0.19		3.25±1.01		3.06±0.82	
Fa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e	0.78±0.17	0.086	3.62±0.76	0.503	3.66±0.61	0.938
Over university graduate	0.83±0.15		3.70±0.63		3.67±0.70	
Mo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e	0.80±0.15	0.645	3.64±0.70	0.811	3.68±0.70	0.299
Over university graduate	0.82±0.15		3.67±0.62		3.63±0.65	

* $p < 0.05$, t-test and One way ANOVA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attitud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1		
Oral health attitude	0.395**	1	
Oral health behavior	0.368**	0.583**	1

** $p < 0.0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4. 총괄 및 고안

초등학교 학령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 잦은 간식섭취와 구강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기에 형성된 구강관리능력은 장차 일생을 통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학령기에 이루어지는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하여 향후 개인의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칫솔질은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관리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구강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매 식사 후, 간식 후,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칫솔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주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40.5%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인기와 노년기의 치주병에 기인하는 구강건강장애 또한 초등학교 상급 학년에서 이미 치은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⁷⁾ 초등학교생의 학교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치주병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고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성장 발육과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을 ‘기초식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충분히 섭취하여 경조직의 석회화를 촉진시켜주는 식품을 ‘보호식품’이라 하며, 다당류 중 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신선한 식물성 음식은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정해 주므로 ‘청정식품’이라 하고, 당 성분을 함유하여 치아우식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우식성 식품’이라고 한다¹⁸⁾. 청정식품에 대한 지식은 56.4%로 김¹¹⁾의 78.7%, 오와 김¹³⁾의 65.8%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장과 송¹²⁾ 54.5%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식성 식품에 대해서는 95.2%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여 선행연구¹¹⁻¹³⁾의 95.8%, 99.0%, 95.6%와 같은 결과로 올바른 지식을 보였으나 행동에서는 2.98로 다른 행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김¹¹⁾의 연구에서도 우식성 식품에 대해 높은 지식을 보였으나 다른 행동에 비해 우식성 식품에 대한 행동이 2.50과 2.32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높은 지식과 낮은 태도 및 행동을 보였다. 장과 송¹²⁾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하루 우식성 식품 섭취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강보건교육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우식성 식품과 치아우식병의 관련성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간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불소는 치아의 수산화인회석과 화합하여 불화인회석을 형성함으로써 치질의 내산성을 증가시켜 치아우식병을 예방한다⁹⁾. 불소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의 응답률은 72.7%, 태도에서는 3.61로 높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보였다. 장과 송¹²⁾의 연구에서는 91.6%로 높게 나타났으나 김¹¹⁾의 연구에서는 25.5%, 오와 김¹³⁾의 연구에서는 46.5%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¹⁷⁾의 연구에서는 64.1%가 효과적이라고 대답하였고,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사용에 대해 2.99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불소에 대해 낮은 지식과 태도를 보였다. 김¹⁷⁾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병의 예방방법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78.8%), 당분섭취제한(64.8%), 올바른 칫솔질(88.4%)이라고 대답하였고, 불소치약의 사용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64.1%, 54.6%로 다른 방법에 비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구강건강의 인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치아가 다른 어떠한 건강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 및 음식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¹⁷⁾의 연구에서는 치아건강의 관심도에서 68.6%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구강보전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57.3%가 칫솔질, 20.1%가 정기적인 구강검진이라고 대답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치과검진에 대해 2.52로 다른 행동에 비해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최¹⁹⁾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관심도와 구강보건행동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학생 스스로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이끌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김¹¹⁾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지식과 행동을 보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김¹¹⁾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행동수준과 칫솔질 횟수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높은 지식수준과 올바른 태도를 보였으며 오와 김¹³⁾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²⁰⁾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나이와 학력, 경제 상태에 따라 자녀의 구강보건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구강질환에 대해 느끼는 감수성이 낮았으며 자녀의 칫솔질 횟수, 치과방문 횟수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지식과 태도,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태도와 행동이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각 영역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으로 보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김¹¹⁾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행동, 행동과 칫솔질 횟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김 등¹⁰⁾의 연구에서도 지식, 태도, 행동 간에, 김¹⁷⁾에서도 지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으로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교구강보건교육 시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태도 및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건강한 구강관리습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접근이 용이한 일부지역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일반적 특성에서 초등학교들의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없는 문항으로 인해 일반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확대와 자료의 정확한 조사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하고 향후 학교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하였다.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H 초등학교의 5학년, 6학년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10점 만점에서 7.86으로 높은 지식을 보였으나 치아청정식품에 대한 문항에서 43.6%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50으로 나타나 비교적 올바른 태도를 보였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에서 2.6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51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에서 2.5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을 비교한 결과 학년에 따라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5.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지식과 태도, 행동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태도와 행동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 태도, 행동 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었다($p < 0.01$).

이상으로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교구강보건교육 시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치주병 및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구강보건태도 및 행동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건강한 구강관리습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김숙진.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발간 보도자료.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3. 국민구강보건연구소. 1995년 국민구강건강조사. 서울: 국민구강보건연구소; 1995.
4. 보건복지부, 한국구강보건의료원.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1.
5. 보건복지부, 한국구강보건의료원.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4.
6. 보건복지부, 한국구강보건의료원.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7.
7. 구강보건교재개발위원회. 공중구강보건학. 2판. 서울: 고문사; 2010:44-57.
8. 장기완, 황윤숙, 김진범 외 8인. 구강보건교육학. 4판. 서울: 고문사; 2007:172.
9.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5판. 서울: 고문사; 2009:168-439.
10. 김숙진, 안숙희, 김영혜, 정은순. 부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69-84.
11. 김연화. 울산시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6;6(3):227-230.
12. 장분자, 송경희.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6;6(3):201-206.
13. 오경재, 김정숙.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지식수준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009;42:275-287.
14. 이혜경.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15. Oliverira ER, Narendran S, Williamoson D.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practice of third grade school children. Pediatric Dentistry 2000;2(5): 395-400.

16. Ostberg A, Halling A, Lindblad U. Gender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and perceived oral health among adolescents. *Acta Odontol Scand* 1999;57(4):231-236.
17. 김교웅. 초중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석사학위논문]. 경산:경산대학교 대학원; 1999.
18. 예방치학연구회. 현대예방치학. 3판. 서울: 군자출판사; 2010:273.
19. 최규범.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20. 김영희, 송근배, 이성국.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1;15(1):83-92.